태고종, 종조 선양으로 정체성 확립 '잰걸음'

태고종 총무원, 북한산 태고사서 태고보우 국사 탄신 다례재 봉행

운경 종정예하 "禪수행 매진하라"
상진 스님 "태고보우, 韓불교 뿌리"
11월 방중…中불교와 학술세미나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3일 북한산 태고사 원증국사 부도탑 일원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 탄신 723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다례재 직후 대웅보전서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을 통해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섰다.

태고종 총무원은 10월 23일 북한산 태고사 원증국사 부도탑 일원에서 '태고 보우 원증 국사 탄신 723주년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사는 태고 보우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태고 보우 국사는 이곳에서 주석하며 중흥사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태고사에는 태고 보우 국사를 기리는 탑비와 부도탑이 세워져 있다.

이날 다례재는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탄신을 기리며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봉행됐다. 특히, 태고종 종정예하가 직접 다례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를 더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선양과 국사의 유훈에 따라 참선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운경 스님은 "임제의 법을 이은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은 태고 보우 국사는 교와 선을 모두 겸비한 선지식"이라며 "태고 보우 국사가 깨우친 바와 원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 종도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경 스님은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종단 사미·사미니가 된 초학자들이 왔으니 당부한다. 선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열어라"며 "경(經)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선이 제일이더라. 종도들도 꼭 선수행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법맥의 정통성이 태고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 보우 국사는 한국불교의 적자이자 모든 종단의 뿌리"라며 "부처님의 법맥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지금의 종도들에게 전해주신 태고 보우 국사가 종조인 것은 우리 태고종의 홍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선양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계획도 소개했다.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절강성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고 의발을 전해 받아 고려 임제종의 적통을 이었다.

상진 스님은 "11월 중국에 태고 보우 국사가 머무르며 인가를 받은 천호암을 순례하며, 그곳에서 중국불교협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종단 총무원은 태고 보우 국사의 가르침과 유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고종을 창종한 대륜 대종사의 부도탑에서 대륜 대종사 다례재를 봉행한 대중들은 종단 발전을 위한 부단한 정진을 발원했다.

다례재 참석 대중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저희 종도들은 지난 혼란했던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고 있다"며 "태고종도가 더욱 굳은 의지와 정진력으로 향상일로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새 종책모임 '선우회'

10월 24일, 발족 기자간담회
회장 성로 스님 등 6명 동참
"종도 권익향상 최우선 과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선우회'(회장 성로 스님)가 공식 출범했다.

선우회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발족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종단 미래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겠다.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고 종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종단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사진〉

선우회는 회장 성로 스님을 비롯해 종책위원장 법원 스님, 간사 해량 스님, 제정 스님, 보인 스님, 덕림 스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선우회는 '종단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라는 창립문을 통해 "종단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우회는 종도들의 권익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종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중앙종회에 반영되고 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종도들이 종단 내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직한 포교종책 수립에 앞장설 것도 약속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부처님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 종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대인들이 불교 가르침을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혁신적인 포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이들은 "종단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종단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종교계 나서 의료대란 중재 역할"

종지협, 10월 22일 의협회장 등
의료 단체 대표와 간담회 가져


10월 22일 의료단체 대표들을 만난 진우 스님은 종교계가 나서 의료대란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 단체 대표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종지협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고 인간 대 인간 생명 대 생명으로 종교계가 논의, 중재를 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다"면서 "정부와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중재를 해보면 좋겠다. 의료계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 관계자들은 종교계가 적극 나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먼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이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 큰 반발을 샀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사회와 정부, 교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진우 스님은 "정치권 의견을 받고 의협 쪽 의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접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여 분 공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종교계가 준비 중인 중재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의료계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으니 정부안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제안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들도 이에 공감하며 "좋은 중재안을 기대하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 살리는 하루, 그린붓다로 함께"

비구니회, 10월 19일 법룡사서
탄소비움 자비채움 '그린붓다데이'



부처님 지혜와 자비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길 발원하는 깨우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0월 1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2024 탄소비움 자비채움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를 개최했다.〈사진〉 축제는 사회적 의미의 지구환경운동과 전법의 의미를 담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등 환경에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인드라망과 같은 인연 속에서 환경 파괴 악순환의 고리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일체 생명을 귀히 여겨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생명을 위한 그린붓다들의 발원문'을 통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자각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생명을 수호하는 사명을 드높일 것을 서원했다.

법룡사 경내와 마당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점심 공양에는 '청정한 음식, 쓰레기 없는 공양'을 위해 한그릇 음식으로 비빔밥이 제공됐다. 환경콘서트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로 구성된 '블루로터스'의 식전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종무부원장 김종숙
부 원 장 이영숙, 이향순
총 무 강미화 대 외 박봉희
재 무 이선덕 문 화 이춘선
봉 사 권춘자 웰다잉 김미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smile!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